

2008년 22호

밝게 열린 아이들 세상



계명원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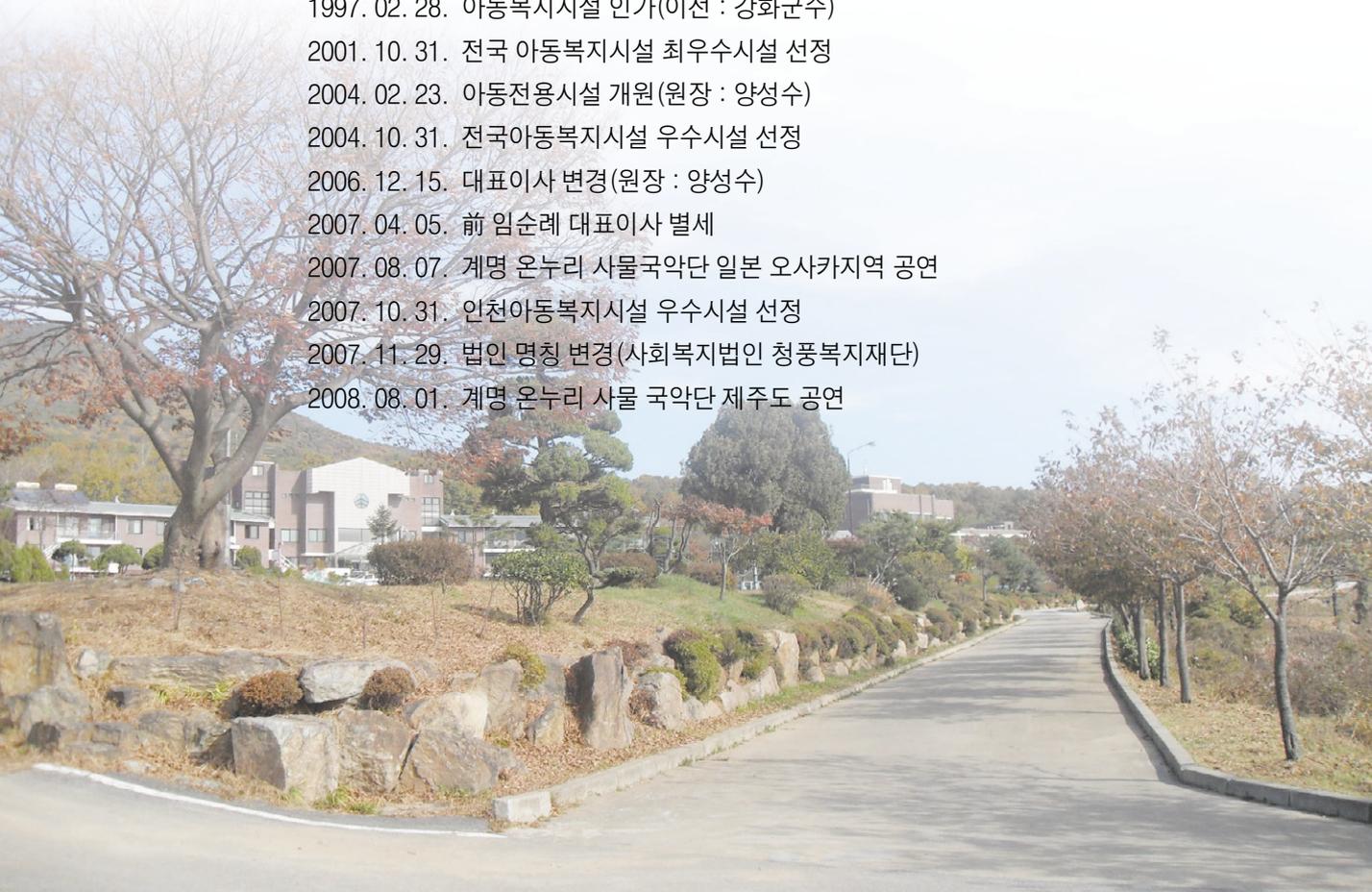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계명원은 부모잃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이념으로 1951년 설립되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도시화, 산업화의 문제에 따라 파생된 가정파괴와 재해등의 요인으로 발생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단순한 수용보호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함께 따뜻한 사랑안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훈

**바르게
무엇이든지 깨끗이
열심히**

■ 연혁

- 1951. 11. 20. 재단 법인 계명원설립 (故 양계석 원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7번지
- 1957. 08. 23. 재단법인 인가(보건사회부)
- 1977. 01. 28.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
- 1989. 07. 30. 前 양계석 원장 별세
- 1989. 08. 10. 시설 대표자 변경 (現 양성수 원장)
- 1989. 08. 23. 대표이사 임순례
- 1996. 10. 21. 시설이전(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 1997. 02. 28. 아동복지시설 인가(이전 : 강화군수)
- 2001. 10. 31. 전국 아동복지시설 최우수시설 선정
- 2004. 02. 23. 아동전용시설 개원(원장 : 양성수)
- 2004. 10. 31. 전국아동복지시설 우수시설 선정
- 2006. 12. 15. 대표이사 변경(원장 : 양성수)
- 2007. 04. 05. 前 임순례 대표이사 별세
- 2007. 08. 07. 계명 온누리 사물국악단 일본 오사카지역 공연
- 2007. 10. 31. 인천아동복지시설 우수시설 선정
- 2007. 11. 29. 법인 명칭 변경(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 2008. 08. 01. 계명 온누리 사물 국악단 제주도 공연



CONTENTS

02 추억이 있는 세상

충고의 고마움 - 故양계석 원장님의 글
짧고도 긴 계명 이야기 - 양성수원장님

04 격려가 있는 세상

돌아가는 길이 더 가까울 수도 있다 - 조산초교 이응복교장선생님
지엠대우한마음재단과 계명원의 만남 - 지엠대우한마음재단사업팀장 이은구

06 가족이 있는 세상

새내기 엄마 - 김미선 선생님
화목의집 가족소개

08 꿈이 가득한 세상

온누리 사물국악단 제주도 공연의 이모저모
온누리 사물국악단 제주도 공연을 다녀와서
들에 핀 꽃송이 처럼 - 최주영 과장님

11 사랑이 가득한 세상

지역사회자원봉사/후원자 소개 (아콘냉면, 조이필)

12 우리들이 이야기 세상

우리집 행사소식 및 새얼굴 새가족

15 나눔이 있는 세상

자원봉사 소식
자원봉사 소개 - 북한선교센터

18 손길이 있는 세상

후원금 및 후원물품 내역정리
후원안내



충고의 고마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잘못이 없는 사람만이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면 평생동안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지적,
그 자체 만으로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고맙다고 생각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에 소홀하여 내 잘못을 지적하면 언짢게 생각해 왔다.

부족(否足)한 사람들 이기에 서로가 부족을 채워 준다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품앗이 일 것이다.
주변에 나를 붙잡아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어른이나 선배가 있다면
그는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옛말이 있지 않는가?

(1965년 3월 7일)

故 양계석 원장님 글



1958년 2월 새해 첫날故 양계석 원장님과 아이들



1960년 12월 우는 아이 달래시는故 양계석 원장님

짧고도 긴 계명이야기

오곡(五穀)과 과일이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 가을입니다.

보여 지는 가을 들녘만 보아도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고 축복의 계절입니다.

모두가 이 맘 때쯤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지 돌아보는 숙연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곳 강화에 자리한 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어섰고, 선친의 뜻을 받들어 이 계명원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아이들의 천국으로 세워오기까지 어느덧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1년에 전쟁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 잃은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시작된 계명원이 60여년을 바라보고 있어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제 나이 지천명을 넘어 살아온 세월이 계명원의 나이만큼이나 되었기에 원에서 퇴소해서 자란 그 당시의 형님들과 누이들, 연배들이 친구가 되어 지금도 연락이 닿고 있어 내 든든한 가족이고 형제 인 듯합니다.

사회 곳곳에 스스로 자립해서 공인의 한사람으로 자리 잡은 이도 있고, 교육자로,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몽클하게 밀려오는 감사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 때마다 선친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살고저 고민하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살고저 세상과 싸우며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만 했던 그 아픔의 시절!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사회복지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고 사회복지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시절에 자란 초창기 퇴소자들은 더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더 좋은 서비스로 선진화되고 사회복지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계명이여!”

이 말은 내 선친이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 또한 우리 계명원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살아 온 시간들보다 더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따스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좀 더 나은 계명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커다란 꿈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주시는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결실의 계절에 가정과 사업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원장 양성수

돌아가는 길이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천이 아름답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행운이며,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산천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화의 산과 들을 한 번 가만히 돌아보시지요. 산에는 각종 나무와 풀이 자라고, 들판의 논과 밭은 거름져서 곡식이 아주 잘 되지요. 우리 땅에서 자란 곡식이며, 채소며, 과일들이 외국의 것들과 비교해 모양과 맛에서 으뜸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들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축복받은 땅 한반도에 살아오신 우리 조상들은 이웃끼리 풍성한 먹거리를 서로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이 가진 분은 조금 덜 가진 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왔고, 서로서도 도우며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와서 훈훈한 인심이 넘쳐났습니다.

나라 전체에 인심이 넘쳐나니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예절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세계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많은 이는 나이 적은 이를 사랑과 아낌으로 대했고, 나이 적은 이는 나이 많은 이를 지극한 존경심으로 대했으며, 같은 또래 끼리는 서로 깊은 이해와 우정으로 언제나 사람사이가 훈훈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산초등학교
교장 이 응 복

이렇게 사는 세상이야말로 사람 살 만한 세상이 아닐까요?

지금의 사회는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많이 달라져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람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일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세상은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 재주를 익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툭툭 튀는 개성적 삶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셋째,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조금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겠지요. 이 때 어려운 일을 조금 쉽게 해결하려고 지름길을 찾다가 약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한다면 그때는 쉽게 해결되었다고 즐거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보면 조금 멀게 느껴져 포기한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새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명원 식구 여러분! 두주먹 힘차게 쥐고, 어금니를 꼭 다물고, 똑바로 앞을 보면서 힘내십시오.

지엠대우 한마음재단과 계명원의 만남!!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엠대우'라는 회사는 2002년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눈부신 판매신장, 고용창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지엠대우가 출범하여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은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낸 활동분야입니다. 2005년 설립한 지엠대우한마음재단은 민간영역으로서 사회복지 수요에 기여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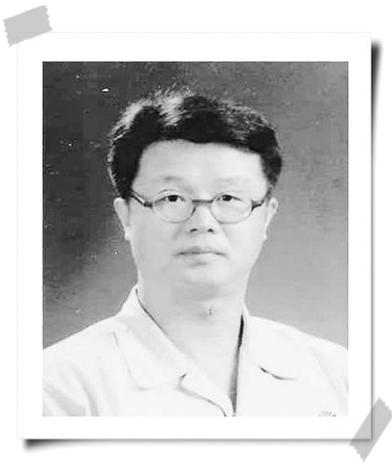
구체적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 사회복지 및 사회공익단체에 차량지원 사업, 자원봉사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엠대우한마음재단과 계명원의 운명적인 만남은 2년 전 계명원이 추진했던 풍물공연단의 물품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지원 사업으로 전국으로 외국에까지 호평을 받는 풍물공연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마음재단과 계명원이 함께하는 협력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강화도는 어느 지방도시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문화적 소외지역을 지엠대우한마음재단이"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모토 속에 추진했던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문가요. 미추얼 오페라단과 지엠한마음재단과 협약을 통해 오페라공연을 위해 찾아갔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매우 어려운 오페라 공연이지만 지역내 어르신들께



지엠대우 한마음재단 사업팀장 이은구

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주시며 즐겁게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들과 뿔망뿔망한 눈망울로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인천종합예술의 전당에 초청하여 공연을 보고, 두번째 계명원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오페라 공연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간 신통하고 자랑스런게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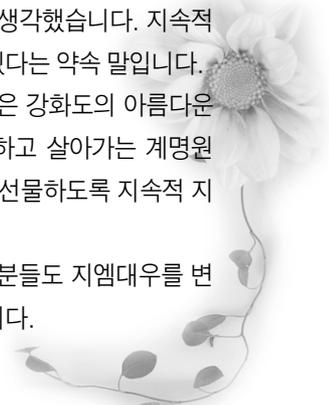
이런, 문화공연이 정말 늦은 감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이들이 공연을 보면서 어려운 오페라를 소화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니?" "재미 있었니?" "지루하지 않나니?" 등 그러나 아이들은 초롱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자주오세요. 약속 할 수 있죠?" "어떤 아이는 커서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되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엠대우한마음재단은 강화도의 아름다운 곳에서 '초연지기'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계명원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꿈을 선물하도록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명원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분들도 지엠대우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 아이들과 함께 별을 따는 사람이고 싶다.



여자초등 2반(즐거운집)
김미선 선생님



새로운 나의 터전이 되어버린 이곳.
입사면접을 보기 전 홈페이지의 사진들을 보고 또 봐도 너무 궁금하여
미리 와 본 기억이 난다. 집에서 먼 그 시골로 왜 가느냐며
주변에서의 반대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의 부름을 듣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
산과 나무가 많은 이곳은 고요하면서도 편안함이 느껴져 미소가 절로 나왔던 기억.
계명원 근처에서 나는 향기로운(?)냄새의 시골 풍경 또한 인상적 이다.

즐거운 집이라는 곳에서 유치부 아동들과 초등학생 아동들과의 첫 만남은
설레 이기도 하면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처음 함께 살게 된 아이들. 수빈이, 명선이, 서원이, 승혜, 소연이 그리고 환희.
아이들의 뚝망 뚝망한 눈동자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곤 한다.
여섯 빛깔의 무지개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생각했던 것 보다 참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며,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느끼자는
초심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며, 야단치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달. 두달... 그리고 일곱달이 지나.
어느덧 파릇파릇한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다.
그리고 계명원의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지나 아이들은 어느덧
부쩍 크고 자라 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천방지축의 실수 투성의 부족한 나를 보며
'선생님,선생님' 하며 잘 따라준, 그리고 잘 자라 준 아이들이 고맙기만 하다.

그동안 뭐가 그리 바빴는지 강화의 밤하늘을 올려다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보다.
얼마전 무심코 올려다 본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너무 예뻐서 잠시 멈춰 그 수 많은 별들을 보느라 나의 눈이 바쁘게 움직인 적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별을 따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높은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선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고
별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난 그 아이들과 함께 별을 따는 사람이고 싶다.
때론 친구로, 언니로, 선생님이로, 엄마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

화목의집 이야기

화목의집은 계명원의 가족 중 남자 초등부 아이들 6명과 선생님 1명이 함께 모여 사는 집입니다.
 제일 큰 형이 6학년이 박용웅과 정이삭이며 5학년인 신현도, 2학년인 장현준, 천성환, 윤영찬이
 용기종기 화목을 일구어 내며 아침 해와 함께 떠들썩한 목소리가 하루를 엮니다.



- 화목의집 아이들의 엄마 (담당교사) -

1. 강수진
2. 밝아(너무 밝아서???)
3. 김창완
4. 평화로운 사람.
평화롭고 싶으니까
5. 발바닥
6. 이선균
7. 평화를 나눌 수 있기를.

1. 천성환

2. 땅콩
3. 엄마
4. 축구선수. 축구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5. 운동
6. 없다
7. 모범생이 될 것이다.

1. 윤영찬

2. 생쥐
3. 누나
4. 택시기사, 우리아빠가
택시기사니까
5. 축구
6. 없음
7. 공부를 잘 할 것이다.

1. 정이삭

2. 이삭손
3. 코는 김태희고
눈은 한가인이다.
4. 가수. 노래를 잘 불러서
5. 앞머리
6. 사이니
7. 재벌집 아들

1. 신현도

2. 신데렐라
3. 머리가 길고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 사람
4. 형사. 우리나라에 있는
도둑들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5. 없다.
6. 이승기, 김종국
7. 빌게이츠의 아들이 되어
유산을 받아 부자가 된다.

1. 장현준

2. 안경탕이
3. 이민지
4. 축구선수, 축구선수를
하고싶고 티비에
나오고 싶어서
5. 만들기
6. 이승기, 이수근
7. 축구를 잘하고 싶다.

1. 박용웅

2. 가리용
3. 영웅재중. 머리는 남자처럼
되었고 눈도 좀 크고 얼굴도
브이라인, 몸매는 죽여줘요.
4. 야구선수. 대한민국이 야구에서
우승해서 감동을 받아서
5. 눈이 크고 속눈썹이 길어서
여자 눈을 닮은 것
6. 영웅재중, 시아준수, G드래곤
(권지용)
7. 훌륭한 인기가 죽이는
가수가 되는 것

온누리 사물단 제주도 공연 이야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비전을 품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온누리 사물단이 작년 일본공연에 이어 올해에는 제주도에 가서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모조리 쏟아내고 돌아왔습니다.

2008년 온누리 사물단 제주도 여행속으로 빠져~ 볼까요?

장소 : 송죽원 장애인 요양시설 및 성이시돌 노인요양원, 탐동공원 야외공연장 제주도 일부지역 문화탐방

첫째 날

8월 1일 16:00 출발(연안부두)
드디어 공연 일정의 시작이다,
인천항에서 집결한 온누리 사물단과 인솔자들은 크루즈 여객선 오하마나호를 타고 밤바다를 달려 제주도로 향합니다.



공연일정과 여행 일정을 설명하며

둘째 날

이른 아침 도착한 제주도는 우리들의 공연을 반겨주는 맑은 하늘로 온누리 사물단에게 첫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송죽원에서의 첫 번째 공연을 현대 속에서 끝나치고 예정된 두 번째 공연 장소인 성이시돌 요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다시 한 번 근사한 공연을 선보이며 둘째날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셋째 날

이번 제주도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탐동 야외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용두암관광과 신기한 도깨비 도로를 구경을 마치고 드디어 탐동에서의 공연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은 관객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째 날

오전에는 어승생악 등반 그리고 오후에는 이호 해수욕장에서의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그동안 공연 준비와 공연으로 고생한 아이들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째 날

오늘은 제주를 실컷 만끽하는 하루였습니다. 소인국 테마파크, 김녕 미로공원, 만장굴, 신나는 카트체험, 성산 일출봉, 선사 유적지, 성읍 민속마을, 그리고 제주민속 박물관까지 정말 많은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신비의 섬 제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누리 식물국악단” 제주도 공연을 다녀와서

- 강화고등학교 3학년 조성은 -

5박 6일동안 제주도를 다녀왔다. 많은 연습 끝에 공연을 3번 했다. 첫날 공연은 배를 타서 그런지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열심히 공연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 번째 탐동 공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도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감 있게 잘 따라주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모두가 긍정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특히 야외공연에 앞서 몇 명 안 되는 관객들 앞에서 나도 많이 당황했지만 아이들도 많이 당황했었는데 다들 머리를 맞대고 관객들을 불러 모을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모습에서 이번공연으로 인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과 자신감을 배웠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 탐동 야외 공연장에서 만난 또 한명의 계명인!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유난히 우리 공연장 주변을 맴돌며 우리에게 따뜻한 눈길을 전하던 한 형을 기억한다. 알고 보니 예전(대략10여년전) 계명원 식구로 한술밥을 먹던 우리들의 선배였다. 나도 다른 아이들도 모르는 아주 오래 된 선배였지만 우리들을 보고 많이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일처럼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계명원에서 나가더라도 한번 계명인은 영원한 계명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동생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 기쁘다.

이 공연을 통하여 인내심과 자신감을 좀 더 키울 수 있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것 같다.

들에 핀 꽃송이 처럼...

최주영 과장님

계명원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좋아하는 노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들에 핀 꽃송이처럼 아름답게~♪.”

마니산을 마주하고 진강산 품에 안기어 맑고 푸르른 자연 속에 있는 계명원에 첫발자국을 디디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큰 선물처럼 느껴졌다.

아이들과 함께 한지 한 달을 즈음해서 계명원 <온누리 사물국악단>의 제주도 공연에 인솔자로 가게 되는 기쁨을 안았다. 사물단 아이들이 한 달 내내 늦은 밤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는 모습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숨소리는 내 자신, 우리 가족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기쁨과 긴 배여행의 끝에 닿을 수 있는 제주도와 첫 만남에 대한 즐거움과 설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을까...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배를 타고 첫날을 보낸 아이들의 첫 공연은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어 흔들린 배에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진 못한 상태에서 하선 후 바로 시작되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에서는 제주도의 맑은 바람처럼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관람하는 장애인분들도 한국의 소리 안에서 흥겨워하였으며 아이들 또한 피곤함을 뒤로한 채 공연을 기쁘게 하는 모습에서 서로의 마음이 교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에 연이은 <성이시들 요양원>의 공연은 잔잔한 강물같은 어르신들 앞에서 손녀손자가 된 마음으로 멋진 공연을 통해 효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둘째 날 탐동광장의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던 아이들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흐르는 듯하다.

“저희가 팼플렛 나눠줄게요.”

“길놀이를 하면 안될까요?”

“갈 수 있어...괘파리와 북치는 사람 몇 명만 가면돼.”



“지금은 관객이 없지만 우리가 공연할 때 추임새를 크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거야.”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스스로 관객몰이까지도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제 공연과 자신이 하나가 된 듯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해주었다. 마음을 비운 아이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둘씩 모인 관객들은 격려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얼굴 가득 흐르고 있었다.

늦저녁 따사롭게 비추는 태양아래서 아이들은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올랐다. 그 날개짓 속에서 내일을 향한 희망과 자유를 본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같이 가는 그 곳에 아이들의 소박한 재능으로 작은 사랑을 꽃피웠고, 만나는 이들 안에 하늘을 향해 힘차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희망을 속삭여주었다.

* 「온누리사물국악단」 아이들이 한국무용과 사물놀이를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이 되어주신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인천광역시청, 뉴시스통신사, 제니스 TNS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함께 나누며 늘 사랑하며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지역사회 자원봉사 · 후원자 소개

조이필의 5문 5답



소재 : (주소)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1-5
(연락처) 032-933-9389

1 내가 생각하는 계명원의 모습은?

뭐랄까? 처음 계명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무질서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라는 강한 유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아동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름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은비의 친구들로 기억이

됩니다. 하루는 꼬마 여학생 3명이 매장에 와서는 물건 구경을 하면서 힐끔 힐끔(?)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계명원에서 왔어요."하고 대답을 하더니 은비의 후원자냐고 되물어 그렇다고 했더니 왜 은비만 후원하냐고 말하고는 황급히 사라진 세 여학생들!

3 후원하게 된 동기...

2008년 초, 계명원 식구들이 매장에 단체로 쇼핑을 하려고 오셨는데 그 중 수줍고 앓던 얼굴에 공손히 인사하는 은비를 본 후 후원을 생각하게 됨...

4 계명원과의 인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저 역시도 부모 이전에 자식으로써 예전보다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5 계명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록 은비 한 명만의 후원자이지만 계명원 식구 모두가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좋은 인연과 만남으로 이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계명원 식구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야콘냉면의 5문 5답

1 내가 생각하는 계명원의 모습은?

늘 밝고 활기찬 지도교사와 건강한 모습의 아동들...

2 기억에 남는 아동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아직까지 아동들과의 개별만남이 없어 아쉽습니다.

3 후원하게 된 동기...

주변의 소개로

4 계명원과의 인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든든한 많은 가족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5 계명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꿈은 꼬~옥 이루어 집니다.



소재 : (주소)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795번지 1호
(연락처) 032-937-7771

** 저희 계명원 가족을 사랑해주시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6월 ~ 9월 행사소식

6월 26일 - 직원야유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진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직원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의 개성 넘치는 모습들로 인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7월 11일 ~ 7월 12일 - 연고자 캠프

인천광역시 아동상담소 주최로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 있었던 연고자 캠프!!! 임지호 · 지훈(모), 손수진(부), 한예진(모) 참석 하셨습니다.

7월 30일 - 건강검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다!!!!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명원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故양계석 원장님 추도예배



우리 집 계명원을 설립하신故양계석 원장님을 추도하는 예배가 원 전체 아동들과 무교회 식구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고인을 추도하며故양계석 원장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사진과 글을 같이 감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7월22일 ~ 31일 - 반별 프로그램



여름방학이면 신나는 일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집 가족들끼리 다녀오는 가족 나들이... 여자 중등반은 부평 CGV, 지하상가, 여자 고등반은 서울 청계천, 남자 고등반은 강화 석모도 자전거 하이킹, 초등반은 신나는 물놀이 및 체험활동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8월1일~6일 - 제주도 온누리 사물단 공연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우리가락을 멋지게 선보였던 온누리 사물단이 올해는 제주도로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온누리 사물단 아이들의 멋진 모습에 연신 박수갈채가 이어졌더랍니다^^

8월 13일 ~ 15일 - H2O 캠프



매년 여름방학이면 학교 밖 학교(H2O) 캠프에 다녀옵니다. 이번에는 남양주에 있는 스타힐리조트로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민속놀이와 민요를 배울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까지... 거기다가 가슴 속 깊이 남는 감동까지 느낄 수 있는 H2O 캠프였습니다.

8월 18일 ~ 8월 23일 - 영어캠프

한국노총후원자님들의 배려로 상미, 경자, 희숙이가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국노총중앙교육원으로 5박 6일간의 영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영어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는 아이들... 많이 보고 배울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28일 ~ 30일 - 꿈나무 축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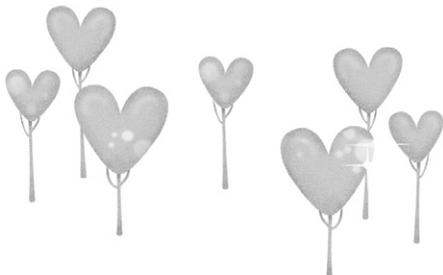


충남 부여에서 있었던 꿈나무 축구대회... 우리 인차일드 아이들이 작년에는 전국 우승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해내더니 올해에는 아쉽게도 3위를 했다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진 인차일드 화이팅입니다.

8월 20일 ~ 27일 - 풍선아트수업



양도면사무소자치센터에서 후원해 주셔서 풍선아트수업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작품에 스스로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소문이...^^



9월 10일 - 조산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아직도 귓가에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는 응원소리가 맴돕니다. 계명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뛰고 달리는 마음까지 상쾌한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9월 13 ~ 15일 - 추석 연휴 민속놀이



울긋불긋 색동저고리 입고 연날리기, 투호, 윷놀이... 그리고 재미난 송편 빚기, 전 부치기등 갖가지 추석 명절 놀이에 한번 빠져 봅시다! 우리 계명원 대식구들과의 명절 연휴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원내 생일잔치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이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이루어 집니다. 바로 생! 일! 잔! 치! 그달 그달 새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로 생일 맞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시간 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장기자랑들이 날로날로 업그레이드 된다죠?! 심사위원들마저 고민하게 만드는 우리 가족들의 숨씨~ 정말 놀랍습니다. ^^

새 얼굴 새 가족 소개

신규 아동

★★ 김환희(여초 5)

어찌 보면 화가 난 듯 하고, 어찌 보면 밝은 햇살처럼 고운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김 환 희! 환희야~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어. 알고 보면 눈물도 많고 정 많은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벌써 인유걸스 축구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답니다.

★★ 김유일(남 유치부)

얼굴만 보아서는 개! 구! 쟁! 이! 하고 써 있는 듯 보이지만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멋진 유일이랍니다. 이름처럼 유일하게(?) 인사도 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유일이! 마음속에 바다의 추억을 품은 유일이가 계명원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 김용현(남초 3)

쿵쿵쿵~ 오늘 하루도 용현이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게 움직입니다. 처음 계명원에 왔을때만 해도 수줍은 듯 말이 없었던 용현이가 어느덧 골목대장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놀습니다.

★★ 이준혁(남초 4)

가수 비보다 더 멋지고 잘생긴 준혁이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집 모든 여자아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가지요? 준혁이의 과묵함과 가끔 한번씩 보여주는 살인미소는 우리집 여 선생님들에게도 인기 짱입니다요~!!!!



새로오신 선생님

★★ 최주영 과장님

저희집 외모 좀 보시는 거 아시죠? 빼어난 외모와 큰 키에 다정다감한 말투까지... 우리 아이들 요즘 과장님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다는 소문이... 때론 엄마처럼, 때론, 언니처럼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오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세요.

★★ 강수진 선생님

수진아!~ 하고 부르면 돌아보는 사람이 계명원에는 참 많습니다. (고 3 강수진, 손수진, 윤수진 선생님, 그리고 새로 오신 강수진 선생님까지...)
단아하고 차분한 느낌이 주변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하신답니다.

★★ 윤성진 선생님

유쾌! 상쾌! 통쾌! 옆에만 있어도 그 유쾌한 에너지가 저절로 느껴지는... 주위를 기분 좋게 하는 힘이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참! 고향이 저~기 멀고 먼 마산이라고 하네요.

★★ 곽병철 선생님

오랜 기간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셨던 곽병철 선생님께서 이제는 계명원에서 남자 고등부 형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설피지만 실 사이 없이 쏟아지는 마술쇼와 유머러스한 입담으로 고등반은 늘 레크레이션중...??

★★ 우리나라 선생님

벼두(벼루), 보또(복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새로 오신 우리나라 선생님이 만드신 신조어(?) 랍니다. 조금 아주 찝끔 찝지만 귀여움은 몇 배나 더 한 발음이 매력적이 있습니다.
우! 리! 나! 선생님 화이팅!!!!

자원봉사활동소식

* 일산병원 보건교육 및 신체계측 - 6월 18일

일산병원 신입생생님들의 방문으로 우리 아이들은 보건교육도 받고 키·몸무게를 손수 재주시며 저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세요 ^^



* 엠코 자원봉사 - 7월 2일

사랑이 듬뿍 담긴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배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엠코가족분들... 이번에는 계명원에 오셔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피자도 먹을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척이나 행복해 했다는...(이건 다음에 또 오시라는 얘기? ^^)



* 한전 자원봉사 - 9월 3일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가족들에게 푸근한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강화 한전 가족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도 한 가득 후원해 주시고, 아이들 한명 한명 기억해 주셔서 좋은 말씀도 함께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 한국야쿠르트 자원봉사 - 6월 21일

한국야쿠르트 분들이 다녀가시면 저희집이 완전~히 깨끗해 진데요~ 가끔씩 방문해 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생필품 후원도 해 주시고 저희집이 반짝 반짝 윤이 나도록 청소까지 해주신답니다. 감사드려요~ ^^



* GM대우와 함께하는 야외 활동 (스킨스쿠버) - 7월 20일

GM대우 한 마음 재단 '돌핀스 동아리'에서 우리 언니 오빠들을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초청해 주셔서 근사한 바베큐 파티에 스킨스쿠버도 가르쳐주시고 신나는 모터보트 드라이브까지... 한여름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주셨습니다. 감사~~ 감사~~



* 푸르덴셜 자원봉사 - 9월 27일

우리집 식당을 반짝 반짝 윤이 나도록 청소해 주셨습니다. 푸르덴셜 가족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은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오후에는 우리집 형들과 축구도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자원봉사 활동 소식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7월 12일부터 ~ 9월) 온누리 사물국악단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온누리 사물국악단 언니 오빠들이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호세요양원, 강화정신요양원, 국립재활원, 강화군 어버이날 행사, 달빛마을... 이 정도면 저희들도 대단하죠?! ^^ 온누리 사물국악단 화이팅!



● 자원봉사 활동 소개 ●

● 신앙지도 ●

성린교회
송문호, 길광웅 선생님

● 학습지도 ●

기차길 옆 공부방

● 노력봉사 ●

나누기
일심회
독일목욕탕
해수탕
강화정신요양원
도서실 관리 (방경이, 홍성숙)
예원미용봉사 (윤경숙, 이재임)
뉴스비트
(주) 새한기업
(주) 제니스
(주) 한국야쿠르트
(주) 엠코코리아
(주) 연우
(주) 푸르덴셜
교보생명 경인지역본부
가천의과대학 '열개' 동아리
북한선교센터

● 새롭게 시작된 지역사회 후원 ●

- **주안장로교회(영어예배팀)**
2달에 한번 영어예배를 통해 영어로 찬양도 배우고 게임도 하며,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 **한자속독(한국 한자 속독 교육협회 - 교육이사 황영숙)**
한자속독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자속독법 15주만 참가하면 한자에 대한 자신감과 놀라운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 **학교종소리(삼산초등학교 어머니회)**
매달 둘째주 토요일 저녁에는 맛있는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듬뿍~ 매번 기대가 되는 맛있는 저녁식사를 해주십니다.
- **불로중학교 가족봉사단**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오셔서 아버님들은 원내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고, 어머님들은 저희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십니다. 함께 온 언니 오빠들은 유치부의 학습지도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 전문지도 ●

사물놀이 (박인희)
한국무용 (최공주)
기타지도 (한태수)
드럼지도 (김광희)
독서지도 (YWCA 큰엄마 모임)

북한선교센터

유명순



늘 갈멜산 기도원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속에 창밖을 내다 보며 무심히 길가에 놓인 '계명원이라는 표지판이 스쳐갔다. 순간 주님이 "그곳을 가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울렸다. 눈물이 났다. 과거 나의 동변상련의 아픔이 느껴왔다.

고2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살의 아래 여동생을 데리고 소녀가장으로 자란 과거가 내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리고 시간이 한달이 지나도록 계명원을 가지 못했다. 주안장로교회집사님 한 분이 기도실로 올라와서 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느냐며 나무랬다.

어리둥절하여 쳐다보고 있노라니 계명원을 가지 않고 있다고 꼬집어 얘기 했다.

주님은 벌써 내 발길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

처음 간날 아이들 배식을 하면서 설거지를 현주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나의 흔적을 외로움을 이들에게서 느꼈다. 그들의

눈동자속에서 사랑이 그리워 외로움에 발버둥치며 상대의 눈동자도 마주치지 못해 돌려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눈물로 흘렀다.

설움이 복받쳐 설거지를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인형도 서툰숨써로 더운날 2~3시간동안 땀을 흘리며 한 땀씩 껌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야' 라는 다정다감한 단어가 절로 나오게 되었다.

친구들아!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늘 계명원에 오기전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우리 자매들이랑 1시간씩 너희들을 향해 주의 사랑과 기적이 일어나라고 부르짖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사랑한다.

북한선교센터 자원봉사자님들은 저희 가족들에게 매주 토요일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 언젠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또 하나의 가족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원 활동 소식

일반 후원

2008년 6월~9월

김성현 10,000	정정례 30,000	이성일 59,760	이근우 40,000	원종례 400,000	김진수 100,000
김선기 800,000	김선학 20,000	최공주 200,000	전서영 30,000	방현규 80,000	장후순 40,000
최경희 40,000	정길오 30,000	이재임 40,000	이동배 450,000	최주영 40,000	장다솜 20,000
박장규 29,280	오원진 120,000	노미화 40,000	김찬섭 40,000	이경순 40,000	김영철 120,000
마인일 200,000	윤경숙 40,000	김민제 120,000	정하영 50,000	손경춘 180,000	박상희 280,000
류창애 120,000	이경민 40,000	윤기옥 200,000	옥영안 40,000	이동용 80,000	노현주 200,000
최대관 40,000	배명수 40,000	홍현국 400,000	박윤미 40,000	홍성숙 50,000	방경이 40,000
김녕희 120,000	한예진 400,000	박향화 100,000	안인숙 20,000	양성수 100,000	
인천시의회 300,000	최인백(한국노총) 200,000	헛트키즈(유미선) 130,000	GM대우한마음회 3,000,000		
공무원교육원 100,000	건강백세약국 200,000	목향초등학교 1,428,070	재단법인푸르덴셜 1,032,000		
회계법인이촌 600,000	(주)사이버 1,090,056	(주)제니스 건설 5,000,000	인천도시개발공사 1,000,000		
(주)세종메이저 600,000	아동복지연합회 7,847,000	성지초교 989,970	(주)제니스티엔에스 5,000,000		
(주)연우 2,000,000	국민김포서지점 500,000	사랑구좌 14,000	KT솔루션지원센터 217,141		
인력공단 33,000	한국문화예술원 2,123,300	주안장로교회(영어예배팀) 200,000			

휴대폰 / 일반전화 후원 (약정금액)

2008년 6월~9월

황경수 12,000	임금숙 40,000	김경수 15,000	박수현 40,000	고인석 15,000	박혜진 20,000
김은희 12,000	김차영 12,000	정상준 12,000	김지현 9,000	한성택 20,000	하준엽 12,000
안광숙 12,000	이훈재 12,000	장영제 20,000	구임희 12,000	유석진 12,000	인경삼 20,000
유상옥 12,000	김점복 12,000	임성인 12,000	권오희 20,000	문정희 20,000	한혜자 12,000
김효숙 20,000	오현민 10,000	이재원 20,000	신광호 12,000	정재근 12,000	안홍수 40,000
유일숙 20,000	정수환 40,000	박상규 12,000	김주현 12,000	이후덕 12,000	안은준 20,000
최현주 12,000	윤석숙 20,000	이해순 12,000	김태희 12,000	김판진 12,000	조영현 12,000
김용원 12,000	박경임 12,000	문용진 20,000	이수영 40,000	조정심 12,000	김시중 20,000
이제광 12,000	신현명 20,000	이용채 12,000	정문희 60,000	곽병철 20,000	박상준 12,000
홍성복 20,000	민문경 12,000	박흥규 20,000	유승희 15,000	오정화 20,000	채혜선 10,000
이상화 12,000	정대중 40,000	최정애 12,000	이상우 12,000	김정원 6,000	이지숙 20,000
김정기 20,000	김정희 12,000	유관순 12,000	김혜정 12,000	차현숙 12,000	정윤희 40,000
최정화 12,000	황선완 20,000	정연순 12,000	이철희 3,000	김주일 5,000	심우천 3,000
최순영 12,000	김옥분 12,000	백승경 12,000	김정숙 40,000	최원제 12,000	박성진 12,000
윤석주 40,000	양소영 20,000	조사무엘 20,000	이선주 3,000	신동민 30,000	이형호 30,000
안한모 6,000	최선옥 3,000	김영일 3,000	안상윤 3,000	홍영기 3,000	김광용 3,000
김용일 60,000	고영철 6,000	심진수 6,000	박지영 6,000	김삼일 3,000	장동수 3,000
윤상범 3,000	오종현 10,000	허란희 9,000	장윤운 20,000	이미희 12,000	전병섭 12,000
봉경해 12,000	이주일 20,000	심구섭 12,000	김인숙 12,000	장호택 20,000	이후덕 12,000
김준용 20,000	정경봉 40,000	이봉재 20,000	조수환 20,000	홍경수 40,000	황선완 12,000

후원 물품 명단

(2008년 6월~9월)

6월 : 예원미용봉사(의류8벌) 해수탕(축구공2상자) 지역주민(계란1판) 미금초등학교(의류32상자, 색연필 7세트, 연필36자루, 필통1개, 줄넘기1개, 양말4켢레, 종합장1권, 공책3권, 도서189권) 일산병원(체중계 1개, 신장계 1개) 면사무소(음료수20개) 한국야쿠르트(에프킬라24개, 샴푸·린스혼합 40세트) 잠원초등학교(의류41벌) 군청(과자50박스)

7월 : 마리실버힐(과자50박스) 엠코코리아(과자15상자, 수박 8통, 방울토마토 3박스) 계란농장(계란20판) 인천구청(라면2상자) 한국노총(세탁기1대, 진공청소기1대, 자전거7대, 디지털카메라3개, 커피음료 16상자, 경제책자5세트, 영어캠프입소권3장, 롯데리아상품교환권4장, 고속도로카드1장, 롯데상품권6장) 출판사(비유와상징문제집221권) 보건소(모기기피제16개) 안산영재학급(도서129권) 목향초등학교(수박5통, 떡15kg, 의류50상자, 도서565권) 제니스건설(세제24개, 샴푸·린스혼합30세트, 점보롤60개) 박인희선생님(과자96개) 고려인삼영농조합(삼계탕재료-십만원상당) 한국출판협동조합(도서8권) 부평구노인복지회관관장(바지19벌) 계란농장(계란10판) 지역주민(의류30벌)

8월 : 김천식(수박3통) 문상현(라면4상자, 초코파이1상자) 신슬기할아버지(아이스크림120개) 허니밀(팔빙수120인분) 황영숙(초코파이96개, 요구르트120개, 바나나1상자), 김혜경권사(의류100벌) 신앙교회(탁구채10개, 탁구공12개) 조승원(TV1대) 문영숙(아동실내화32켢레) 지역주민(의류100벌, 도서 31권) 고래가그랬지(월간도서3권) 한국과학문화재단(도서89권) YWCA이사님(카스타드8상자) 주안장로교회 영어예배팀(포도1상자, 복숭아4상자, 과자2상자)

9월 : 한전(노트200권, 볼펜70자루, 스케치북10권, 향균연필50자루, 상철노트10권, 색연필60자루, 치약 100개, 비누120개, 크레파스90개, 휴지480개, 샴푸40개, 린스15개, 어린이샴푸6개) 시와동화(책1권) 금호석유화학인사팀(과일34상자) 이은배(과자10상자, 음료수120개) 인천신현초등학교(복숭아 5상자, 배5상자, 사과5상자, 포도5상자) 양은숙(도너츠100개) 목향초교자모회(포도5상자) 장석복(의류1박스, 도서20권) 약사사(포도5상자, 한과1상자) 성지초등학교(사탕1통, 송편2상자, 만두2상자, 사과2상자, 포도4상자, 음료수8개, 과자1상자) 야콘냉면(냉면120인분) 한국노총(라면15상자, 빵120개, 과자5상자, LG선물세트5개) 박육주(돈육13.2kg-2상자) 시교육청(쌀20kg10자루) 인천아동협회(떡12상자, 남자팬티307개, 여자팬티310개, 런닝312개) 강화군교육청(포도5상자) 박형원(송편2상자) 김성기부(사과3상자) 주영혜(사과1상자, 포도1상자, 과자류1상자) 정명옥(사과1상자, 포도1상자, 귤상자, 홍삼1상자, 음료수1상자, 햄2캔) 전등사(포도2상자), 아동복지협회(도서24권) 주안장로교회(도서38권) 학교종소리(의류3상자) 후정초등학교걸스카웃(꿀떡2상자) 강화참전경찰유공자회(포도5상자, 복숭아2상자) 푸르덴셜(휴지180개, 세제6통, 샴푸란10개, 샴푸45개, 치약30개, 비누60개, 축구화4켢레, 재활가방10개, 의류8박스, 다리미2개, 운동화3켢레) 김순녀(과일5상자, 사탕1상자) 새롭식품(뿌셔먹느라면40상자, 라면40상자)

저희계명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후원자로 함께해 주세요.

- 매월 일정 금액을 지로나 은행 온라인, 또는 휴대폰전화 소액결재를 통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농협 : 243063-51-03129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계명보육원

* 자원봉사로 함께해 주세요.

- 우리집에 방문하셔서 아동들의 학습, 예능지도나 노력봉사, 미용, 의료등의 전문기능 봉사로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인증기관]

* 결연으로 함께해 주세요.

- Child Development Account(CDA) -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최대 3만원 까지)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프로젝트입니다.
결연으로 함께 해 주세요.



계명 청소년 수련원 안내

● 주요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연수시설(대강당, 중강당, 다목적실)
문화시설(노래방, 휴게실등), 부대시설(매점, 식당 등)
야외시설(수영장, 등산로), 체육시설(운동장, 잔디구장, 농구장)

● 프로그램

- 창작모듬놀이활동 -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다짐의 시간, 캠프올림픽, 싱어롱, 레크댄스
- 레저스포츠체육 - 산행, 수영, 족구, 댄스, 써바이벌
- 포스트활동 -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
대형웃놀이, 굴렁쇠굴리기, 미니양궁, 미니골프
- 특강 - 리더쉽 트레이닝, 회의진행법, 지도자의길
- 역사체험활동 - 강화역사관, 광성보, 고인돌, 갑곶돈대 등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계명수련원 TEL : 032) 937-8470 ~ 1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우 / 417-853

교통편 **자가용** - 초지대교 → 강화방면 → 온수리 → 조산초등학교 뒤편
- 초지대교 → 온수리 → 양도 → 조산초등학교 뒤편

버 스 - 강화터미널 하차 → 양도 방면 버스 승차 → 조산초등학교 앞 하차
- 강화터미널 하차 → 마니산 방면 승차 → 탐재삼거리 하차 도보5분거리
-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정류장 700, 701번 이용 → 온수리하차



우리들의 뒤편 항상 누군가 계셨습니다.
메마른 세상의 힘든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며 손짓하는
미소와 함께...

잊지 않겠습니다.
보여주신 따스한 관심들과 깊은 정성들을 ...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신 사랑으로 빛어진
우리들의 커다란 꿈들을 ...



발행인 양성수
편집인 문정희, 최재준
발행처 계명원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홈페이지 <http://www.ekmw.or.kr>
전 화 032.937.1755
팩 스 032.937.1988
디자인 인 세종인쇄 032.887.9293